

강진군, 논콩 재배 기계화 기반 확대

파종기·콤바인 6대 신규 구입 13대 임대사업 보급 확대 박차 직불제·재해보험 다양한 지원도



강진군 관내 한 농민이 콤바인을 임대해 파종작업을 하고 있다.

<강진군 제공>

강진군이 논콩 재배의 농작업 편의 제공과 기계화 촉진을 위해 전용 농기계 확대 구입과 장기 임대사업 중심의 기계화 기반 확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강진군은 올해 3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논콩 전용 파종기(2조 2대, 4조 2대)와 콤바인 2대 등 총 6대의 농기계를 신규 구입했다.

이를 포함해 현재 논콩 전용 파종기 9대, 콩 전용 콤바인 4대를 임대사업으로 운영하며 농기계 보급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들 농기계는 파종부터 수확까지 전 과정의 작업 효율을 높여 농촌의 인력 부족과 노동 강도 완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발작물 생산 전 과정을 기계화하는 주산지 일관기계화 사업도 함께 추진 중이다.

강진군은 올해 1개소를 신규로 선정해 콩 파종기를 포함한 8대의 농기계를 추가로 구입하고 이들 장비는 6월 중 장기 임대 방식으로 농가에 공급될 예정이다.

현재까지 9개소의 장기 임대 사업을 통해 다수 농가가 공동 활용할 수 있는 구조로 기계화 기반 확산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같은 기계화 중심 정책은 강진군이 중점적으로

육성 중인 논콩 재배 확대 전략과 맞물려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다.

논콩은 쌀 과잉 생산을 억제하고 식량 자급률을 높이는 데 효과적인 전라작물로 평가받고 있으며, 지난 2024년 358ha였던 강진군의 논콩 재배 면적은 2025년 6월 기준 777ha로 확대되며 당초 목표였던 700ha를 초과 달성하는 성과를 거뒀다.

강진군은 논콩 재배 농가에 1ha당 최대 350만원의 전라작물 직불금과 함께 ha당 최대 150만의

군 자체 지원금을 더해 농가당 최대 4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논콩 재배가 지속 가능한 산업으로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기계화 기반과 행정지원이 필수적”이라며 “전용 농기계 보급과 임대사업, 직불제, 재해보험 등 다양한 정책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농가의 편의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l@kwangju.co.kr

함평군 농기계임대사업장에 ‘농업인상담소’

현장 중심 영농 지원 나서

함평군이 농기계임대사업장 3곳에 ‘농업인상담소’를 설치하고, 지역 농업인을 위한 현장 중심의 영농 지원에 나섰다.

함평군은 최근 중부·동부·서부 농기계임대사업장에 농업인상담소를 설치·운영하며 농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민원과 애로사항에 대한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상담소는 12월까지 운영 예정이며, 농작물 기술 상담, 병해충 진단·대응 방안 제시, 농업인 교육, 귀농 문의 등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 농업인이 겪는 현장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농가 소득 증대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65세 이상 고령 농업인과 정보 접근이 어려운 농가를 대상으로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영농기술과 신제품 종자 등을 보급하며 정보 격차 해소에 이바지하고 있다.

최동섭 중부 상담소장은 “신규 귀농인의 경우 전문 지식이 부족해 작물 재배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많다”며 “고추와 같이 수익성이 높은 작물의 특성을 이해하고 재배하면 충분히 좋은 품질의 작물을 생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정모 함평군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찾아가는 영농지도를 통해 농업 현장 민원을 신속히 해결하고 귀농인의 원활한 정착과 소득작목 보급에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함평=한수영 기자 hsy@kwangju.co.kr



지역 환경운동단체인 그린장성21추진협의회가 10일 군청서 ‘에코웨이브 캠페인’을 전개한 뒤 김한중 군수와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장성군 제공>

그린장성21추진협의회 ‘에코웨이브 캠페인’

탄소중립 실천 서약서 등 받아

“오늘의 작은 실천이 내일의 환경을 만듭니다.” 장성군은 지역 환경운동단체인 그린장성21추진협의회가 10일 군청서 ‘에코웨이브 캠페인’을 전개했다고 밝혔다.

세계 환경의 날을 맞아 추진된 이번 행사는 ▲탄소중립 실천 서약서 작성 ▲재활용쓰레기 분리배출 체험 ▲환경퀴즈 맞추기 ▲기상·기후사진 및 환경도서 전시 등이 마련돼 이목을 끌었다.

1999년 출범한 그린장성21추진협의회(상임의

장 임경택)는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탄소중립 실천을 확산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협의회는 앞선 5월 3일에는 장성호 하류 미락단지에서 꽃심기, 쓰레기 주우며 걷기(플로깅), 일회용품 줄이기 및 탄소중립포인트제도 홍보 등을 펼쳤다.

그린장성21추진협의회 공동의장을 맡고 있는 김한중 장성군수는 “이번 캠페인이 환경의 소중함과 탄소중립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뜻깊은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장성=김영호 기자 yongho@kwangju.co.kr

담양군 6월 한 달간 구강보건 각종 행사 운영

취약계층 맞춤형 관리 프로그램

담양군이 제80회 구강보건의 날을 맞아, 6월 한 달간 다양한 구강보건 행사를 운영한다.

구강보건의 날은 국민의 구강건강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2016년 법정 기념일로 지정됐으며, 매년 6월 9일에 기념행사를 열고 있다.

올해는 ‘80년 함께한 구강건강, 100세 시대의 동반자’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관내 학교 학생과 주민을 대상으로 구강보건 교육, 예방 진료, 치면세균막

관할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또 관내 취약계층과 사회복지시설 이용자를 직접 찾아가 구강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며, 구강건강 형평성 제고에도 힘을 기울인다.

담양군 관계자는 “이번 기념행사가 군민들이 구강건강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올바른 구강 관리 습관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군민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담양=한동훈 기자 hdh@kwangju.co.kr

올 여름 폭염일 많다...나주시, 축산 종합대책 가동

공무원·축산농가 1대 1 담당제 취약 농가 점검·예방시설 지원

나주시가 축산분야 폭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종합 대책을 본격적으로 가동하고 나섰다.

나주시는 여름철 폭염 등 기상재해로 인한 축산농가 피해 최소화를 위해 오는 9월 30일까지 ‘여름철 축산분야 폭염 예방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해당 기간에는 폭염 대책반을 운영하면서 평시에는 기상 상황을 주시하고 폭염특보 발령 시에는 즉시 비상 체제로 전환해 현장 대응에 나서게 된다.

대책 가동에 앞서 나주시는 폭염에 취약한 축산농가 28곳을 사전에 점검하고 337농가에 1억 8200만원 상당의 고온 스트레스 완화제 공급을 완료했다.

또 가축재해보험(3억6700만원), 축사 지붕 열차단재 도포(1500만원), 환풍기·쿨링패드 설

치(7000만원) 지원사업도 추진한다.

축사 화재에 취약한 닭·오리(가금류) 사육 농장 4곳은 소방서, 전기안전공사와 함께 합동 점검을 마치고 공무원과 축산농가 간 1대 1 매칭을 통해 신속 대응 체계를 구축했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올여름 폭염 재해에 대비해 사전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라며 “각 농가에서도 축사 온도를 낮추는 노력 등을 비롯해 가축 건강관리에 각별하게 신경 써 달라”고 말했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kwangju.co.kr

화순군, 행안부 재난관리평가 ‘최우수’

국무총리 표창·인센티브 받아

화순군이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5년 재난관리평가’에서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재난관리평가는 중앙부처,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335개 기관을 대상으로 단계별(예방, 대

비, 대응, 복구) 재난관리 전반에 걸친 재난관리 역량을 종합적으로 진단하는 평가다.

군은 이번 평가에서 ▲(예방) 안전교육 및 문화운동 추진 ▲(대비) 자연재난 대비 실재 점검 ▲(대응) 실제 재난을 가정한 대응 정책의 체계적 운영 ▲(복구) 재해구호 인프라 확보 등의 분야에서 우수한 점수를 받았다.

특히 군은 평가를 시작한 이래 최초로 ‘최우수기관’에 선정돼 국무총리 표창과 함께 향후 인센티브 지원을 확보했다. 이는 재난 예방 시설 보강과 안전 인프라 확충 등에 활용될 계획이다.

구복규 화순군수는 “이번 최우수기관 선정은 재난 없는 안전한 화순군을 만들기 위해 모든 직원과 군민이 함께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화순군이 다양한 재난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지속해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화순=조성수 기자 css@kwangju.co.kr

그린 알로에

알로에 베라겔 즙액으로 400%

그린 프리미엄 베라골드 400

알로에겔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현대인들의 면역력 증진 뿐 아니라 장 건강, 피부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알로에 본고장인 미국산

✓ 유기농 알로에베라겔 즙액 400%

✓ 면역다당체 하루 섭취량 300mg

■ 제조사 : 코스맥스엔비티㈜

■ 유통전문판매원 : (주)그린알로에

※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에서 광고심의받은 광고입니다.